

201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B 형]

1	⑤	2	②	3	②	4	③	5	③
6	①	7	⑤	8	⑤	9	①	10	⑤
11	②	12	③	13	④	14	②	15	⑤
16	⑤	17	④	18	①	19	③	20	④
21	②	22	②	23	③	24	②	25	③
26	①	27	②	28	⑤	29	②	30	①
31	③	32	④	33	③	34	④	35	⑤
36	③	37	①	38	④	39	②	40	③
41	①	42	②	43	②	44	④	45	①

[화 법]

1. [출제의도] 협상의 특성 파악하기

이 협상에서 청소년 단체나 여행사가 제안한 것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제안일 뿐, 상대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처음에는 숙소 변경을 쟁점으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중간에 첫 날 저녁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쟁점이 추가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단체 대표가 협상 전에 조사해 보니 숙소가 견학 장소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고 말한 부분과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곳은 이번 리더십 캠프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요.”라고 말한 부분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 견학 생략을 제안하며 숙소 변경을 설득하는 부분이나 첫 날 저녁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부담하는 부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숙소에 대한 상반된 의견 때문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여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협상 당사자들의 협상 전략 파악하기

청소년 단체 대표(A)가 숙소를 변경하자고 여행사 직원(B)을 설득하면서, 견학지의 입장료와 버스 유류비 등을 빼면 비용이 절감되어 숙소를 옮길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부분을 통해 A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타협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청소년 단체 대표(A)가 질문을 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이는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③ 청소년 단체 대표(A)가 갈등을 회피하며 기존 방안을 고수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조정이 어려우면 다른 여행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협상 결렬을 암시함으로써 비용 인상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갈등을 회피하는 경우는 “더 이상 그 문제 꺼내지 말자.”라거나,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여행사 직원(B)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공격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⑤ 여행사 직원(B)이 청소년 단체 대표(A)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출제의도] 협상 절차에 따른 협상 내용 이해하기

㉠에서 청소년 단체 대표가 상품 가격을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 청소년 단체 대표는 ○○ 견학지를 생략함으로써 동일한 상품 가격 내에

서 숙소를 변경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① 여행사 직원의 “그곳은 저희 여행사 직영 숙소라서 저희도 좋지만, 고객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단체 행사를 위한 넓은 공간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여행사 직원의 “정 그러시면 비용을 조금만 더 들이시는 게 어떨까요?”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청소년 단체 대표의 “음, 그러면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만 저희가 진행하면 어떨까요?”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청소년 단체 대표의 “단, 그 외에 다른 여건이 기존 숙소보다 나빠지면 곤란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A형 4번과 동일]

5. [A형 5번과 동일]

[작 문]

6.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여 개요 수정, 보완하기

(가)에서는 청소년참여활동의 의의를 제시하고,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실제 참여율은 낮은 편이라는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선입견으로 인한 부모의 반대와 입시에 대한 부담 등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내용은 이끌어낼 수 없으므로 ㉠을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2를 보면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참여 방법과 참여활동의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있다. 그런데 개요에서는 ‘청소년참여활동의 참여방법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제시되어 있어 (나)-2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이를 ‘청소년참여활동의 참여 방법과 내용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에서는 인식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데 (가)를 보면 부모가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선입견으로 참여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을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으로 보완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개요를 보면 ‘Ⅱ-2-라’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1을 보면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중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라는 응답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개선 방안에 ‘진학 및 진로와의 연계’를 통한 참여 시간 확보’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은 ‘Ⅱ-2-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다)를 보면 청소년참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충족하는 청소년참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개선 방안에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쓴 글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부모 연수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Ⅱ-3-나’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의견을 인용하여 대중매체보다 연수가 더 효과적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 연수를 활성화하면 인식이 개선되어 자녀의 참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있다.

①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전문가의 견해는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청소년참여활동 참여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가 아니며 ‘Ⅱ-3-나’에 해당하는 내용도 아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Ⅱ-3-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홍보에 따른 기대 효과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Ⅱ-3-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청소년참여활동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은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8.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답사 보고서에는 동구릉에 대해 사전에 조사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정기 답사를 통해 조선 왕릉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했다는 부분에서 답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② 답사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의 “조선 왕릉은 대도시 주변의 생태 환경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니, 조선 왕릉은 먼 과거의 유산만이 아닌 현재에도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부분에서 답사 대상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③ 가장 먼저 건원릉에 들르고 이후 현릉, 목릉을 차례로 둘러보는 부분에서 답사 이동 경로가 드러난다. ④ “그 말을 들으니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졌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느낌을 덧붙였다.

9. [A형 9번과 동일]

10. [A형 10번과 동일]

[문 법]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 이해하기

표준 발음법 제29항 [붙임 1]에 따르면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음은 [ㄹ]로 발음해야 하므로, ‘물약’의 표준 발음은 [물랴]이다.

① ‘떡물’은 표준 발음법 제18항에 따라 [명물]로 발음해야 한다. ③ ‘한 입’은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므로, 표준 발음법 제29항 [붙임 2]에 따라 [한닙]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집일’의 발음은 먼저 ‘ㄴ’음이 첨가되고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따라 [집닐]로, 다시 제18항에 따라 [짐닐]로 발음해야 한다. ⑤ ‘색연필’의 발음 역시 먼저 ‘ㄴ’음이 첨가되고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따라 [색년필]로, 다시 제18항에 따라 [생년필]로 발음해야 한다.

12. [출제의도] 띄어쓰기 이해하기

(다)에서 ‘뽀’ 앞에 있는 ‘그것’은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한다.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뽀’ 앞에 체언이 올 경우 ‘뽀’는 조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붙여 쓴다고 했으므로 ‘그것’과 ‘뽀’를 띄어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할’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므로 ‘만큼’은 의존명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띄어 써야 한다. ② ‘나’는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하므로 ‘대로’는 조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붙여 써야 한다. ④ ‘못해’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⑤ ‘못하구나’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3.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주호는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에서도 비교 대상은 명확하지 않다. ‘나’와 ‘책’이 비교 대상이라면 “주호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라고 고쳐야 하고, ‘주호가 책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이 비교 대상이라면 “주호는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책을 좋아한다.”라고 고쳐야 의미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① ‘부르다’의 피동형은 접사 ‘-리-’를 사용한 ‘불리다’이므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② 동작의 주체가 ‘손님’이고 화자가 명령하는 상황이므로 해요체의 종결 어미 ‘-세요’를 사용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③ ‘설레다’의 명사형은 명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설렘’이므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⑤ ‘제품’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어서 ‘-시-’를 쓸 수 없으므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14. [A형 14번과 동일]

15. [A형 15번과 동일]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미드니잇가’에서 어간 ‘밋-’의 받침 ‘ㄷ’을 어간의 종성과 어미 ‘-으니잇가’의 초성으로 겹쳐 표기했다면 ‘밋드니잇가’로 표기해야 하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 ㉠에는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 ‘ㄷ’과 모음 ‘ㆍ’가 쓰였다. ② ‘구드시리이다’의 ‘-이-’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로서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적절하다. ③ ‘하’는 대상을 직접 호칭하여 높이는 조사로서 여기에서는 ‘님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중세국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현대국어와 달리 ‘에, 이, 예’의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때, ‘에’는 양성모음 아래에서, ‘예’는 음성모음 아래에서, ‘예’는 ‘ㅣ’모음 아래에서 사용되었는데, ㉡의 ‘낙수’에 ‘예’가 붙은 것에 대해, ‘낙수’는 당시 [낙쉬]와 같이 발음되어 뒤에 부사격 조사로 ‘예’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독서]

[17~18] <출전> 양운수, 「독서법」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① 2문단에서 ‘한 번 보고 또 거듭 보아서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어야 바야흐로 옳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책을 읽었는데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 놓아버리지 않는 것이 그래도 낫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세밀하게 이해해 나가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4문단 ‘젊을 때는 ~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나이가 들 것 같으면 ~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힘을 써야 한다.’와 5문단 ‘정신이 우수한 사람은 ~ 함양해야 한다.’에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 독서량을 조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8. [출제의도] 독서 태도 파악하기

<보기>의 민수는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글쓴이는 4문단에서 “젊을 때는 정력이 남으니 모름지기 읽지 않는 책이 없어야 하고 그 뜻을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1~2문단에서 도리(道理)를 얻기까지 세밀하게,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글쓴이는 성급하게 독서량을 채우는 것보다 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할 수 있다.

② 순서를 정해 읽기, ③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정해서 읽기, ④ 실생활에 적용하며 읽기, ⑤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며 읽기 등은 글쓴이가 강조하는 독서 태도와 관련이 없다.

[인문]

[19~21] <출전>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19. [출제의도] 내용에 대해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드로이젠은 ‘인륜적 세계’를 자연 세계가 아닌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드로이젠이 인륜적 세계와 자연 세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랑케는 사료에 대해 철저한 고증과 확인을 거쳐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② 랑케는 과거 사건들은 고유한 가치를 지녔으며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④ 드로이젠은 사료 고증만으로는 과거에 대한 부분적이고 불확실한 설명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라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⑤ 드로이젠은 ‘인륜적 세계’라는 범주로서의 역사가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선험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A]에서 랑케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하며, 목적을 앞세워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에서 ‘과거에 일시 편입시킨 영토에 대한 지배권 회복을 주장하기 위해’는 목적을 앞세운 것이고, ‘러일전쟁 전후에 체결된 국제 조약 자료를 선별’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사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④는 [A]의 랑케가 비판할 수 있는 역사 연구 사례이다.

① ‘주변 국가의 어휘들을 어휘군별로 분류’한 것은 사료를 고증하고 확인하는 것을 중시한 랑케의 관점을 반영한 역사 연구 사례이다. ② ‘관리들의 장신구와 생활 용품 등을 수집’한 것은 사료를 고증하고 확인하는 것을 중시한 랑케의 관점을 반영한 역사 연구 사례이다. ③ ‘영토 경계를 나타내는 비석의 문구를 채록’한 것은 사료를 고증하고 확인하는 것을 중시한 랑케의 관점을 반영한 역사 연구 사례이다. ⑤ ‘임진왜란 전후의 토지제도 변천에 관련된 사료를 정리’한 것은 사료를 고증하고 확인하는 것을 중시한 랑케의 관점을 반영한 역사 연구 사례이다.

21. [출제의도]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비교하기

<보기>의 ‘신사학과’는 역사가의 역사인식이 자신의 인식 관심과 자기 시대의 관점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으므로, 이들의 역사인식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드로이젠’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인륜적 세계가 역사가의 역사인식과 해석을 결정한다고 보았으므로 그의 역사인식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① ‘드로이젠’과 ‘신사학과’ 모두 역사가의 주관적 역사인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③ ‘신사학과’는 역사적 사실을 변화 그 자체라고 보았으며, 역사인식의 범주를 형성하는 것이 있다고 보지도 않았다. ④ 인륜적 세계를 상정하여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설명하는 것은 ‘드로이젠’이다. ⑤ ‘드로이젠’과 ‘신사학과’가 역사적 사실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사회]

22. [A형 16번과 동일]

23. [A형 17번과 동일]

24. [A형 18번과 동일]

25. [A형 19번과 동일]

[예술]

[26~27] <출전> 이호승, 「한국 줄타기의 역사와 연행양상」

26.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3~4문단에서 줄타기는 ‘기예’와 ‘재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줄고사는 참가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줄타기 전체에 걸친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는 줄타기의 각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줄타기의 긴장과 이완의 반복되는 형태가 자연의 섭리와 삶의 굴곡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놀이’ 과정에서는 관중의 긴장이 이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감상하기

3문단에서 재담과 노래에서는 관중의 긴장감이 이완된다고 했다. ㉡은 줄광대가 보인 기예에 대해 배우씨가 비아냥거리는 말로 관중의 재미를 유발하여 긴장감을 이완시킨다고 볼 수 있다.

① ㉠은 배우씨가 줄광대의 기예를 보고 칭찬 격려하는 재담으로서 줄광대와 배우씨는 이와 같은 재담을 통해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소통한다. 보조 출연자로서 배우씨가 줄광대와 주고받는 대화는 줄광대의 극중 상황을 촉진하는 한편, 줄광대의 기예를 조절하며, 줄광대의 기예와 재담, 노래를 더욱 부각한다. 1~2문단을 통해 줄광대와 어릿광대가 함께 어울린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을 통해 줄광대의 기예가 관중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줄광대가 줄 위에서 고난도의 재주를 부리는 부분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④ ㉡은 줄광대가 관중들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으로, 2문단을 통해 극적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은 노래 부분으로, 3문단을 통해 노래가 긴장감을 이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

[28~30] <출전> 강해묵 외 옮김, 「생명-생물의 과학」

2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이 글은 신생아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갈색 지방 세포에서 열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제로는 ‘신생아의 체온 유지 방법’이 적절하며, 부제로는 ‘갈색 지방 세포의 기능을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이해하기

<보기>는 갈색 지방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일부로 ㉠는 막간 공간, ㉡는 내막, ㉢는 기질이다. 3문단의 ‘막관통 단백질들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소 이온을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킨다.’를 통해 수소 이온은 전자가 막관통 단백질에 전

달됨으로써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① 3문단에서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거쳐 기질로 운반’되면 ‘이후 지방산의 분해로 발생한 전자’가 ‘막관통 단백질로 전달’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막관통 단백질들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소 이온을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는 수소 이온이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면 막간 공간과 기질의 ‘수소 이온의 농도 차이로 인해 양성자 이동력이라 부르는 에너지가 형성’된다고 했으며, 5문단에서는 수소 이온이 ‘썬모제닌이라는 단백질 통로를 거쳐 이동’한다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5문단의 ‘수소 이온은 양성자 이동력에 의해 가속도가 붙어서’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막간 공간의 수소 이온은 양성자 이동력에 의해 “농도가 낮은 기질로 되돌아가게 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5문단에서 ‘갈색 지방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만 존재하는 썬모제닌이라는 단백질 통로를 거쳐 이동’한다는 부분과, 3문단의 “막관통 단백질들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소 이온(H⁺)은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킨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5문단의 ‘일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수소 이온이 기질로 되돌아갈 때 ATP 합성효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양성자 이동력을 ATP 합성에 사용한다.’를 통해 일반 세포의 경우 양성자 이동력을 ATP 합성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의 ‘갈색 지방 세포의 경우 썬모제닌은 양성자 이동력을 ATP 합성에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소 이온은 양성자 이동력에 의해 가속도가 붙어서 기질의 수분 등과 부딪히게 되고 그 결과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를 통해 갈색 지방 세포는 양성자 이동력을 열 생성에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시가]

[31~33] <출전>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이 작품은 사계절에 따른 흥취와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춘 7>의 ‘갈게는 다편이오 올제는 둘이로다’와 <추 9>의 ‘넋일도 이리히고 모뢰도 이리히자’에서 대구의 방식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통사 구조가 유사한 구절을 대응시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무스것고’와 ‘그려넹고’, ‘식식흔고’와 같이 의문형 어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무스것고’는 문답으로, ‘그려넹고’와 ‘식식흔고’는 감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지만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④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상충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의 반복은 드러나 있지 않다.

32. [출제의도] 시어를 중심으로 시적 상황 이해하기

㉔에서 ‘도선’은 헛되고 덧없는 세상인 ‘부세’와 대조되는 공간이다. 화자는 이 공간에서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고 있다. 따라서 ‘도선’이 화자가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을 반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서는 ‘들’을 배에 실어 함께 돌아오는 화자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들’이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㉔에서 ‘낫대’는 장마가 끝나고 고기잡이를 하러 가는 어부의 흥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낫대’가 자연에서 느끼는 흥만감을 고조시킨다는 진술은 적절

하다. ③ ㉔에서 화자는 ‘연강텃장’을 ‘그려넹고’라고 하며 자연이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연강텃장’이 화자를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㉔은 ‘넋일’과 ‘모뢰’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의 화자는 추위를 잊을 만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다. 따라서 ‘넋일’과 ‘모뢰’도 현재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작품 비교하여 감상하기

[A]에서 ‘세상’과 ‘던헛’은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고 ‘구름’과 ‘파랑성’은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보기>에서의 ‘명월’은 화자가 벗이 되고 싶은 대상이다.

① <보기>는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현실 개혁에 대한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보기>에는 현실에 순응하는 화자의 자세가 나타나 있고 [A]에는 자연을 즐기는 현재의 만족감이 표현되어 있다. ④ [A]에서 ‘몸ᄫᆞ’는 화자가 머물고 있는 자연 공간을, ‘세상’은 화자가 떠난 속세를 의미하므로 두 공간은 대비되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강호’와 ‘풍월 강산’은 모두 자연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공간은 대비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⑤ <보기>에서는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A]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A]와 <보기>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고전소설]

[34~37] <출전> 작가미상, 「정음선전」

3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정공 부자는 떠나는 이유를 묻는 유승상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유승상이 정공 부자가 떠날 당시 그들이 떠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초왕’은 정시량의 아버지로서 정시량이 유소저의 부정을 의심하고 바빠 가기를 청할 때, 정시량과 함께 유소저의 집에서 바로 떠났다. 초왕이 정시량을 꾸짖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노씨’는 유승상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노태에게 사주하여 유소저의 혼사를 방해했다. ③ ‘유소저’는 정시량이 떠난 일에 대해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린다. 따라서 유승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정시량’은 유소저의 안색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으나 유소저와 노씨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였다.

35. [출제의도] 서사 구조 파악하기

<보기>는 노씨가 유소저에게 가한 두 번의 위해를 구조화한 것이다. 1차 위해는 음식에 독약을 넣어 유소저를 죽이고자 한 것이며, 2차 위해는 노씨가 노태를 시켜 유소저의 정절을 의심받게 하여 유소저에게 해를 입히고자 한 것이다. 노씨가 유소저에게 가한 1차 위해가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난데없는 바람’이라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유소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가 되고 있으나, 2차 위해가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① 1차 위해에서 노씨는 음식에 직접 독약을 넣으므로 자신을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노씨가 계획한 1차 위해의 실행 과정에서 유모는 독약을 든 음식을 유소저가 먹지 않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유모는 유소저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조력자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노태는 노씨의 사주를 받고 간부(姦夫)로 위장하여 2차 위해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노씨는 음식에 독약을 넣어 유소저를 죽이고자 한 1차 위해가 실패로 돌아가자 노태를 사주하여 유소저에게 해를 입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1차 위해의 결과가 2차 위해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내적 동기를 유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A]는 사건의 전말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고, [B]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하여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B]와 달리 [A]가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B]에서 유승상은 지난 밤 정량이 돌연히 돌아간 연유를 유소저에게 재차 물음에도 불구하고 유소저가 대답하지 않음에, 말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승상과 유소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A]에 ‘갯참’ 같은 비유적 표현은 있으나 이를 통하여 인물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에는 ‘가련하다’라는 부분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만, [B]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B]에는 특정 사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없다.

37.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①은 유소저가 정절을 의심 받은 것에 대하여 결백함을 알리기 위해 혈서를 쓰니 눈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드러난 유소저의 심리를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뼈에 사무치게 맺힌 원한이라는 뜻의 ‘각골통한(刻骨痛恨)’이다.

② ‘동병상련(同病相憐)’은 같은 병을 앓는 환자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③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이다. ④ ‘풍수지탄(風樹之嘆)’은 효도하고자 할 때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⑤ ‘일희일비(一喜一悲)’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일어남, 혹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현대소설]

[38~40] <출전> 이동하, 「파편」

38.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나’가 어렸을 때의 삼촌 모습과 ‘나’가 성인이 된 후 만난 삼촌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시간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삼촌의 과거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① 이 작품은 ‘나’가 삼촌의 과거 행적을 회상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건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③ 공판정에서의 대화 장면은 삼촌과 상대와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삼촌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삼촌의 행적을 ‘나’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소재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관계 이해하기

어머니가 아버지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어머니는 삼촌의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에 그늘이 짙어지는 것을 파편 조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③ 삼촌은 파편 조각 제거 수술이 실패한 다음, 두 번

다시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④ 삼촌은 제대한 후 골방에서 틀어박혀 지내며 파편 조각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동시에 성격도 폐쇄적으로 변하는데, ‘나’는 이러한 삼촌의 모습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를 통해 ‘나’는 파편 조각이 삼촌에게 육체적 상처를 넘어서 내면에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버지 제삿날을 알고 있다는 삼촌의 말을 통해 ‘나’는 삼촌이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삼촌의 상흔, 즉 파편 조각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삼촌의 말과 파편 조각을 결합하여 삼촌이 아버지 죽음의 정황을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서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받은 고통의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촌의 ‘기이한 행적’은 무의식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이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내면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삼촌의 ‘기이한 행적’을 전쟁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의 실현으로 보기 어렵다.

① ‘빈 껌데기’는 삼촌이 전쟁의 상처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삼촌이 말수가 줄어든 것은 성격이 점점 폐쇄적으로 변한 것으로, 전쟁의 상처로 인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총은 전쟁의 무기로 삼촌이 ‘엠원 소총’을 지니고 있던 것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총구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자 무의식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으로 보아, ‘살의의 충동’은 전쟁의 폭력적 상황에 내몰린 삼촌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현대시]

[41~43] <출전> (가) 오장환, 「고향 앞에서」
(나)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4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산짐승’, ‘젠나비’ 등의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였고, (나)는 ‘강’, ‘달’ 등의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였다. ② (가) (나)에는 모두 수미상관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지 않았다. ④ (가)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되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⑤ (가) (나)에는 모두 시적 공간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4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B]는 봄을 맞아서 얼음장이 떠나려가는 정경을 표현한 것이다. 현실과 대비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따뜻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④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쓸쓸하고 처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⑤ 청각과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그리워하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은 해가 저물어 점점 더 깊어

보이는 강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자 노동자의 비애가 깊어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행위를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삶을 자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화자가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슬픔’을 ‘퍼다 버리’는 것은 강물에다 삶의 비애를 덜어 내는 것으로 일종의 정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있는 것은 화자가 적극적인 현실 극복 의지 없이 무력감과 실의에 빠져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④ ‘돌아갈 뿐이다’, ‘돌아가야 한다’는 화자의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희망 없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화자의 인식이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셋강바닥 썩은 물’은 산업화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산업화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 필]

[44~45] <출전> 이태준, 「파초」

44. [A형 44번과 동일]

45. [A형 45번과 동일]